



국내 유일 음향방출 검출기 제조업체

‘정확한, 자연스러움’이라는 뜻의 라틴어 ‘Rectus’의 어원을 근거로 이름 지어진 (주)렉터슨(대표이사 김동률)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음향방출(AE), 스트레인, 온도, 압력, 회전수 등 여러 가지 신호를 수집 및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는 업체다.



렉터슨은 국내 유일의 음향방출(AE)분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작 및 상태감시설비(CMS) 제작해 국내 사용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충실한 기술개발투자를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해 가고 있는 전문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렉터슨은 지난 2006년 3월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력 발전소 전기 1급 감시계통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으며, ISO9001:2000 인증 획득을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는 전문기업이다.



음향방출 실무교육

렉터슨의 주요 제품을 살펴보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은 소음, 진동, 스트레인, 온도, 압력, 회전수, 전류, 전압 등의 신호를 표준 장비, 휴대용 데이터 수집 장치, 데이터 레코더 등에서 신호를 입력받아 표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모니터링 및 진단 시스템(상태 감시설비, CMS ; Condition Monitoring System) ▲진동 감시설비 (VMS ; Vibration Monitoring System) ▲보일러 튜브누설 감시설비(Boiler Tube Leak Monitoring System) ▲오일 오염 감시설비(Oil Contamination Monitoring System) ▲음향누설 감시설비(ALMS ; Acoustic Leak Monitoring System) ▲금속파편 감시 설비(LPMS ; Loose Parts Monitoring System)는 생산설비, 발전설비 등의 상태를 적절한 방법으로

모니터링하고, 설비의 문제 발생 시 진단을 통해 해결해 설비를 보호, 품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 모니터링 및 진단시스템이다.

또한 수명예측 알고리즘 구현으로 대상 설비의 예측 정비를 통해 생산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보일러 튜브 누설 감시 설비

음향 방출 시스템은 물체의 변형, 균열, 누설 또는 파괴 시에 발생하는 탄성파를 음향방출센서를 이용하여 손상 정도를 비파괴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탄성파는 재료의 파괴 이전부터 작은 변형이나 미세한 균열(crack)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AE의 발생 경향을 진단하여 재료와 구조물의 결함 및 파괴를 발견 또는 예측할 수 있다. KEA

주요 연혁

- 2000 (주)렉터슨 창립
- 2001 한국무역협회 등록
- 2002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선정(중소기업청)
- 2003 '한·러 공동 기술 개발사업' 선정(산업자원부)
- 2003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산업자원부)

- 2006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인증 획득
- 2007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공급업체 등록
- 2008 지역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선정(산업자원부)
- 2010 한국수력원자력 기기수리업체 등록
- 2012 용·복합 기술개발사업 선정(중소기업청)